

실시간으로 남북 평화협력 다양한 방안 논하다

2020 DMZ 포럼

내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방식 실시
평화운동 협력 등 16개 세션 구성
개회식·기조연설 도청 유튜브 방송

남북 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2020 DMZ 포럼'이 17, 18일 양일간 펼쳐진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채택했다.

'DMZ는 평화를 원한다'란 주제로 열릴 이번 포럼은 국내외 석학, 전문가, 평화



기회 세션 6개 ▲평화운동 협력 세션 6개 ▲특별 세션 2개 ▲초청 세션 2개 등 총 16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이번 DMZ 포럼은

NGO 등 패널리스트 9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확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개회식 및 기조연설과 함께 ▲

한반도 평화 정착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다양한 주제와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많은 도민들의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포럼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DMZ 포럼 공식 홈페이지(www.dmzforum.or.kr)에 접속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개회식 등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으며, 개회식 및 기조연설은 경기도청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포럼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허원티스,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한반도총선캠페인이 공동 주관한다.

신태영 기자

한반도 평화 기원 '렛츠 DMZ' 행사 내일 개막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고 DMZ의 가치를 알리는 종합 축제인 경기도의 '렛츠 DMZ (Let's DMZ)' 행사가 내일부터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내일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캐슬런 스티븐스 전 주미대사 등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DMZ 포럼',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와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리는 음악 공연행사인 '라이브 인 DMZ' 등이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DMZ 평화통일 마라톤'을 취소하는 등 행사 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사전 예약제로 인원을 제한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참여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렛츠 DMZ' 행사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DMZ가 갖는 생태와 평화의 의미를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홍의표)

한반도 평화·DMZ 가치 알리는 '렛츠 DMZ' 축제 내일부터 개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고 DMZ의 가치를 알리는 종합 축제인 경기도의 '렛츠 DMZ (Let's DMZ)' 행사가 내일(17일)부터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내일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미대사 등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DMZ 포럼',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와 일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리는 음악 공연행사인 '라이브 인 DMZ' 등이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0 LET'S DMZ 조직위원회 발족식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DMZ 평화동일 마라톤'을 취소하는 등 행사 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사전 예약제로 인원을 제한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참여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렛츠 DMZ' 행사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DMZ가 갖는 생태와 평화의 의미를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익표 기자(euypyo@mbc.co.kr)

포럼·콘서트·다큐 등 DMZ의 모든 것...경기도, 'Let's DMZ' 개최

ODN노컷뉴스 문혜원 기자

8.19 화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DMZ 가치 전 세계 전파 확산, 공연, 전시, 스포츠, 다큐영화제 아우르는 종합축제 '코로나19 고려 온라인 비대면 방식 도입'



1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강 평화부지사(오른쪽)와 임동원 Let's DMZ 추진위원장(왼쪽)이 Let's DMZ 추진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기도 제공)

'8.19 화랑공동선언' 2주년과 DMZ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경기도 '릿츠 디엠지(Let's DMZ)' 행사가 오는 17일부터 한 달여 동안 이어진다.

'릿츠 디엠지(Let's DMZ)'는 △DMZ 로리 스타리브 인 DMZ Live in DMZ △DMZ 런(DMZ RUN) △DMZ 국제다큐영화제 등 4개 행사를 포함하는 '공동 브랜드'다.

임동원 추진위원장(현 통일부차관)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현 집행위원장(경기도 문화재단 대표)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올해 행사계획을 발표했다.

'릿츠 디엠지(Let's DMZ)'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DMZ의 가치를 공유하고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개최되는 공연, 전시, 학술, 스포츠, 다큐영화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축제"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저지되었던 도입들을 확보하고 더불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동원 추진위원장은 "선진국 및 DMZ를 생태와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목표를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DMZ 포럼'은 한반도 평화협력과 국제시민사회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적 담론 형성로 위해 마련된 학술 행사로 온라인(www.dmozforum.or.kr)으로 접근할 수 있다.

'DMZ는 평화를 만든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이재강 경기도지사와 라에베리아 평화포럼이 리어뷰어, 김원만 정부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를 지낸 조선시리아 기조연설에 나갈 예정이다.

이어 함께 분성민 외교안보특보, 최승민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등이 참여하는 4개 세션(기획, 초상, 특별, 발표토론회)이 펼쳐진다.

말세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

이재강 부지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력과 국제시민사회 공동번영을 위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도출,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반영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브 인 DMZ(Live in DMZ)'는 다음달 23일부터 25일까지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다. DMZ 콘서트는 선시-케임브리지 DMZ 필리자로 구성된다. 28일 열리는 콘서트에는 오상진 전 아나운서와 배우 유아리 사외로 마이무와 이지, 마이즈원 등 아이돌 그룹과 손준호, 김소연, 최은호 등 유명 뮤지션들이 무대를 꾸민다.

콘서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제를 통해 관람인원을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삼바 시 무관중 온라인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될 수 있다.

23일부터 25일까지는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판문점을 대표로 'DMZ 필리자'를 추진하고 이르면, 공동평화구역을 평화 메시지로 등 DMZ의 가치를 담은 미술과 미디어 작품이 전시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실제 전시공간을 확대해 3D 가상전시관을 구축, 입체영상과 체험을 통해 관람에 용이 없는 관람객들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DMZ 런(DMZ RUN)'은 DMZ 일원을 직접 뛰거나 걸으며, DMZ의 평화적 풍경과 평화통일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스포츠 행사로 '평화통일마라톤'으로 가치를 여성미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했다.

대신 156마일 DMZ 도보길의 가치와 매력에 담은 'DMZ 로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올해 중 방영할 계획이다.

'DMZ 국제다큐영화제'는 오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8일간 고양시-파주시에서 소규모로 축소해 개최된다. 33개국 122명의 국내외 다큐를 심사위원, 작품평제자간 대상으로 삼명하고 7개 부문 16개작품 시상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DMZ 가치 알린다"...경기도 '렛츠 디엠지' 개최



(학측부터) 임동원 '렛츠 디엠지' 조직위원장과 이재갑 평화부지사, 강현 집행위원장이 16일 경기도청에서 '렛츠 디엠지' 행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 경기도>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앵커)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의 의미와 비무장지대인 DMZ의 특별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렛츠 디엠지' 행사가 내일(17일)부터 열립니다.

올해는 비대면과 온라인이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행사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구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렛츠 디엠지(Let's DMZ)'는 디엠지(DMZ) 포럼, 라이브 인 디엠지(Live in DMZ), 디엠지 런(DMZ RUN), 디엠지(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4개 행사를 통칭하는 종합 축제입니다.

올해 '렛츠 디엠지' 행사에서 경기도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 시스템 운영에 중점을 두고 4개의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디엠지 포럼은 한반도 평화협력과 국제 사회의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적 담론 형성을 위해 마련된 화상행사로 내일과 모레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디엠지는 평화를 원한다'는 주제로 이재원 경기지사와 라이베리아 평화운동가 리머보위, 클린턴 집무의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를 지낸 조셀니아가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운 만큼 국내외 연사들은 비대면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해 참여하게 됩니다.

라이브 인 디엠지는 다음 달 23일부터 25일까지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리며,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음악 공연행사인 디엠지 콘서트와 전시·체험행사인 디엠지 볼리저로 구성됩니다.

다음달 24일에 열리는 콘서드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무관중 온라인 비대면 공연으로 전환합니다.

디엠지 람은 디엠지 일원을 뛰거나 걷는 스포츠 행사로, 올해는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디엠지 로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할 계획입니다.

디엠지국제다큐영화제는 내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일간 고양시의 파주시에서 소규모로 축소해 진행합니다.

[독취/ 이재갑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 확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평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청일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